

# '2연패 도전' 호랑이 군단, 1차 스프링 캠프 마무리

인천 거쳐 일본으로 이동 최상의 분위기 속 맹훈련 이의리 예상 밖의 회복세 김태형은 선발 경쟁 가세 정의선 회장 깜짝 방문도



올해 KBO 리그 2연패에 도전하는 KIA타이거즈가 미국 어바인 1차 스프링 캠프를 통해

실전 준비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지는 일본 오키나와와 2차 스프링 캠프에서는 연습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을 점검할 전망이다.

18일 KIA에 따르면 선수단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부터 이달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를 베이스캠프로 1차 스프링 캠프를 마치고, 18일 귀국길에 올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지원으로 출국 편과 마찬가지로 입국 편도 전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KIA 선수단은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오는 21일부터는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을 베이스캠프로 2차 스프링 캠프에 돌입한다.

선수단은 1차 스프링 캠프에서 3일 훈련과 1일 휴식 체제로 체력 훈련과 기술 훈련에 집중했다. 이범호 감독과 손승락 수석 코치를 비롯한 코칭스태프 22명과



이범호 KIA 감독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1차 스프링 캠프지인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에서 훈련에 앞서 선수들에게 훈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주장 나성범을 필두로 투수 18명과 포수 3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7명 등 총 60명이 참가했다.

디펜딩 챔피언답게 선수단의 분위기는 최상이었다. 특히 어바인의 기후와 시설은 모두 최상에 가까워 훈련을 진행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는 실내 훈련장을 섭외해 컨디션 유지에 힘썼다.

가장 큰 변수인 시차 적응도 문제없었다. 광주와 어바인은 17시간의 차이가 나

지만 선수단 전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편안하게 이동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컨디션 조절했다.

이범호 감독은 야간 훈련을 없애는 과감한 선택을 선보이기도 했다. 치료가 필요한 선수들은 트레이너를 찾아가고, 훈련에 대해서는 직접 방법을 찾아보고 고민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최고의 수확은 부상 없이 1차 스프링 캠프를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올해도 KBO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KIA가 최정에 라인업으로 새 시즌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좌측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 및 뱀조각 제거술을 받은 이의리의 회복세와 유일한 신인인 김태형의 성장세도 반갑다. 1차 스프링 캠프에서 불펜 투구에 돌입한 이의리는 50구 전후까지 소화가 가능했고, 직구 최고 구속도 143km를 찍었다.

김태형은 5선발 경쟁에 가세했다. 제임스 네일과 아담 울리, 양현종, 윤영철이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된 상황에서 마지막 자리를 두고 김태형과 김도현, 황동하가 도전장을 냈다.

새로운 외국인 아담 울리와 패트릭 위즈덤도 완벽히 팀에 적응을 마쳤다. 이미 메이저리그(MLB)에서 입증된 실력을 훈련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켰고, 친화력까지 과시하며 선수단에 녹아드는 모습이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선수단 전원의 항공편 좌석 업그레이드에 그치지 않고 훈련장 방문과 사업장 초대 및 만찬 제공까지 다시 한번 깜짝 격려에 나섰다.

PGA(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참가 등 미국 일정을 소화 중인 정의선 회장은 1차 스프링 캠프 마무리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코스타 메사 더 클럽하우스 베이스볼에서 훈련 중인 선수단을 방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날 선수단을 기아 미국 판매 법인과 디자인 센터 등 사업장에 초대해 자동차 생산 과정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메뉴를 선정한 만찬까지 마련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현대자동차그룹 구성원들에게도 큰 기쁨이 됐다"며 "폭설로 축승연에 참석을 못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 기쁘다. 승부도 중요하지만 선수단 모두 컨디션과 몸 관리에 힘써 달라"고 격려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전남 선수단, 설상 종목서 금빛 질주

###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첫 날 금 3·은 2·동 1개 수확 여수삼일중 강다현 알파인 금 다시초 이윤주 크로스컨트리 금 바이애슬론 일반부 혼성계주 1위



전남 설상 종목 선수들이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빛 질주를 펼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강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남 선수단은 대회 첫 날인 18일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알파인 스키 유망주' 강다현(여수삼일중 3)이 전남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강다현은 이날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스키장에서 열린 대회 스키알파인 여자 15세 이하부 대회전 결승에서 1분11초13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을 차지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는 무더기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이윤주(다시초 6)는 같은날 강원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12세 이하부 클래식 2.5km 결승에서 9분 19초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년 연속 5관왕에 도전한 조다은(화순제일중 3)은 크로스컨트리 여자 15세 이하부 클래식 5km 결승 출발 과정에서 앞



티모페이 랍신(왼쪽부터), 함해영,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 알렉산드로 스타로두베츠로 구성된 전남 바이애슬론 혼성계주팀이 18일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일반부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며 은메달에 그치는 불운을 안았다. 그는 이하빈(진부중 2·17분53초6)을 맹추격했으나 17분55초0을 기록하며 1.4초 차로 금메달이 무산됐다. 전다경(전남체고 1)은 여자 18세 이하부 클래식 5km 결승에서 18분9초4로 허부경(부산진여고 3·17분18초8)에 이어 은메달을 수확했다.

최지호(화순초 6)는 남자 12세 이하부 클래식 2.5km 결승에서 8분33초4로 박재연(대관령초 6·7분45초2)과 서승민(부

산스키협회·7분56초6)에 이어 동메달을 추가했다.

티모페이 랍신·알렉산드로 스타로두베츠·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함해영이 출전한 전남바이애슬론 혼성계주팀은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일반부 혼성계주 결승에서 1시간15분24초3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으로 전남은 바이애슬론 혼성계주 4연패를 달성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 문상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새 임기 시작

### 연임 성공... 내일 취임식

한국 장애인 사격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성과로 제8대에 이어 제9대까지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연임에 성공한 문상필(사진) 전 광주시의원이 장애인사격인들의 격려 속에 새로운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은 20일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 대전파로스에서 열리는 '2025년 사격인의 날' 행사에서 문상필 제9대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문 회장은 지난 임기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경남 창원 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를 4년 연속으로 유치하고, 2026년에도 국내(개최지 미정)에 장애인사격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등 국제 대회



운영 및 참가에 대한 역량 강화를 이루고 한국 장애인 사격의 국제 위상을 높였다.

새로운 4년의 임기를 맞는 문 회장은 장애인 사격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애인 사격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 회장은 "한국 장애인 사격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종합 우승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저력을 세계에 알렸다"며 "장애인 사격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도전과 인내의 상징이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 차준환·원윤중, IOC 선수위원 후보 '비공개 면접'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 기간에 선출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두고 출사표를 낸 차준환과 원윤중이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의 검증에 응한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평가위원회가 국내 선수위원 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면접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성을 위해 대한체육회는 평가위원회를 선수위원회 및 국제위원회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수위원회가 후보를

최종 의결해 IOC에 통보하는 구조다.

선수위원에 도전하는 차준환과 원윤중은 동계 종목의 스타다. 차준환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을 차지했고, 원윤중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봅슬레이 은메달을 수확한 바 있다.

역대 한국인 IOC 선수위원은 두 명이다. 2004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과 유승민이 각각 2008 베이징 올림픽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선출돼 8년간 활동했다.

한규빈 기자